

현대 중국어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고찰 - 부사부터 담화표지까지

박 은 석*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심 지 영**

(세종대학교 조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 중국어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연구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又’는 품사 면에서 일반적으로 부사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부사 역할 외에 강화사, 담화표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관찰된다. 본고는 현대 중국어 ‘又’가 명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강화사 역할을 하는 경우와 담화표지 역할을 하는 경우의 한국어 대응 양상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현대 중국어 ‘又’, 부사, 강화사, 담화표지, 한중 언어 대조 연구

I. 머리말

본고는 현대 중국어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연구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又’는 품사 면에서 부사로 분류되지만 부사 역할 외에 강화사,

* 제1저자

** 교신저자

담화표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관찰된다.

본고는 박은석(2021a, 2021b)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현대 중국어 부사 ‘又’, 강화사 ‘又’, 담화표지 ‘又’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현대 중국어 ‘又’와 관련된 중한, 한중 대조 연구는 朴恩石(2008[2010]) 등과 같이 ‘又’와 ‘또’를 서로 비교한 연구인 경우가 많았으나 본고에서는 한국어 ‘또’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 중국어 ‘又’에 대한 모든 한국어 대응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은석(2021b) 이전에는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又’가 담화표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와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담화표지로서의 ‘又’에 대한 한국어의 대응 양상을 연구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고는 현대 중국어 ‘又’가 명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강화사 역할을 하는 경우와 담화표지 역할을 하는 경우의 한국어 대응 양상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 중국어의 ‘又’와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부사의 경우 의미 확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 외에 매우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어휘적 의미를 잃고 명제적 의미와 관계없는 요소로 변화하기도 하며 문장 차원을 벗어나 담화적 차원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하고도 섬세한 부사의 쓰임은 외국어 학습이나 번역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모국어 화자라면 직관으로 그 차이를 별 어려움 없이 포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가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나 중국어 모어 화자가 다른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언어 간 통번역 등의 상황에서는 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어 ‘又’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밝힘과 동

시에 그 각각의 쓰임에 대한 한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한·중 언어교육과 번역 등의 방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현대 중국어와 한국어의 부사 연구, 강화사 연구, 담화표지 연구 등 이론언어학 연구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국어, 한국어 교육과 번역 등 실용적 방면에도 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현대 중국어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 ‘又’는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의 용법과 강화사의 역할을 하는 용법과 담화표지의 역할을 하는 용법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박은석(2021a)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 ‘又’의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의 용법이란 “추가”, “시간선후”, “반복”, “계속”, “정도심화”, “환원” 등 구체적이고 명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현대 중국어 ‘又’가 일반적인 부사 역할을 넘어 강화사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고에서는 위키피디아(영어판)와 Huddleston, Rodney D. & Pullum, Geoffrey K.(2002)를 참고하여 강화사를 “절의 명제적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고 그것이 수식하는 단어의 부가적인 느낌 면에서의 문맥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¹⁾로 정의한다. 또한 현대 중국어 ‘又’는 문미에 출현하는 경우 담화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미에 출현하는 ‘又’의 담화표지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그것을 담화표지로 명명한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은석(2021b)이 처음인데 본고는 이 박은석(2021b)의 연구에 기반하여 담화표지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https://en.wikipedia.org/wiki/Intensifier> 발췌, 번역 인용

1.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1-1. ‘추가’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 ‘又’의 원래 의미, 기본 의미는 ‘추가’이다. 현대 중국어 ‘又’의 가장 처음 용례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갑골문이다. 张平(2004)은 갑골문의 “甲午卜, 疏祖乙代十見羌又五. 兹用.”의 예를 들었는데 이 용례는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 제시하고 있는 ‘又’의 용례와 용법 중에서 “三又二分之一” 등의 예문에서 보이는 용법과 비슷한 것이다. 즉, 정수에 다시 우수리수를 더하는 용법인데, 이것은 숫자 면에 있어서의 ‘추가’라고 볼 수 있다. 즉, 갑골문의 용례와 용법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又’의 원래 의미는 ‘추가’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부사 ‘又’가 ‘추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 |
|------------------------------------|-----------|
| (1) 他今天扫了地, 又擦了桌子。 | (马真 2004) |
| (2) 我们的理想朴素又宏伟。 | (CCL) |
| (3) 刚才我买了一支笔, 又买了一个本儿。 | (马真 2004) |
| (4) 吕老师是县里的模范教师, 又是人民代表。 | (800词) |
| (5) 两个女的年纪都极轻: 一个二十岁, 又会唱歌又会打鼓, .. | (CCL) |
| (6) 这大农场的厨房既干净又温暖, 我到底还是说出了这个消息。 | (CCL) |
| (7) 声音整齐而又雄壮。 | (CCL) |

예문 (1)의 경우, 한국어의 ‘그는 오늘 바닥 청소를 하고 탁자도 닦았다.’, 혹은 ‘그는 오늘 바닥 청소도 하고 탁자도 닦았다.’, 혹은 ‘그는 오늘 바닥 청소를 했으며 탁자도 닦았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를 넣어서 ‘그는 오늘 바닥 청소를 하고 또 탁자도 닦았다.’, 혹은 ‘그는 오늘 바닥 청소를 했으며 또 탁자도 닦았다.’로 대응시킬 수도 있다.

예문 (2)의 경우 ‘우리들의 이상은 소박하고도 위대하다.’로 대응시키

거나 혹은 '또'를 넣어서 '우리들의 이상은 소박하고 또 위대하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3)의 경우 '우리는 방금 펜 한 개를 사고 또 공책 한 권을 샀다.' 혹은 "우리는 방금 펜 한 개를 샀으며 또 공책 한 권을 샀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4)의 경우 '呂 선생님은 현의 모범교사이고 인민대표이기도 하다.' 혹은 '呂 선생님은 현의 모범교사이기도 하고 인민대표이기도 하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를 넣어서 '呂 선생님은 현의 모범교사이고 또 인민대표이기도 하다.', 혹은 '呂 선생님은 현의 모범교사이고 또 인민대표이다.', 혹은 '呂 선생님은 현의 모범교사이며 또 인민대표이다.', '呂 선생님은 현의 모범교사이며 또 인민대표이기도 하다.' 등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5)의 “又会唱歌又会打鼓” 부분은 '노래를 부를 줄도 알고 북을 칠 줄도 안다.', '노래를 부를 줄도 알며 북을 칠 줄도 안다.'에 대응시킬 수 있다. 혹은 '또'를 넣어서 '노래를 부를 줄 알고 또 북을 칠 줄도 안다.', '노래를 부를 줄 알며 또 북을 칠 줄도 안다.' 등에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6)의 “这大农场的厨房既干净又温暖” 부분은 '이 대농장의 주방은 깨끗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다', '이 대농장의 주방은 깨끗하면서도 따뜻하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혹은 '또'를 넣어서 '이 대농장의 주방은 깨끗하고 또 따뜻하다', '이 대농장의 주방은 깨끗하며 또 따뜻하다' 등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7)의 경우 '소리가 매우 고르고 웅장하다', '소리가 매우 고르면서 웅장하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혹은 '또'를 넣어서 '소리가 매우 고르고 또 웅장하다' 등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 의미의 '又'는 한 개의 '-도', 혹은 '-며' 혹은 두 개의 '-도'를 넣어서 대응시킬 수 있고, 한국어에서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또'를 넣어서 대응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도’는 첫 번째 항목에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 항목 아래에 예시된 문장 중에서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가 ‘추가’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며’에 대하여 두 번째 항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라고 뜻을 풀이하고 있으며 그 예문으로 “그는 시인이며 교수이다.”, “그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며 운동도 잘한다.”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 예문들은 ‘추가’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두 번째 항목인 “그 밖에 더”와 다섯 번째 항목인 “그 뿐만 아니라 다시 더”가 ‘추가’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항목 아래 예시된 문장 중 “무엇이 또 필요한가”와 다섯 번째 항목 아래 예시된 문장 중 “그는 변호사이며 또 국회의원이다.”가 ‘추가’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 ‘시간선후’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는 부사 ‘又’가 시간적인 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黃婷(2008)의 연구에서는 한 사건에 다른 사건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선후가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아서 ‘시간선후’의 의미를 부사 ‘又’의 독립적인 의미 항목으로 분리하지 않고 ‘추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은석(2021a)에서는 ‘시간선후’를 부사 ‘又’의 독립 의미 항목으로 독립시켰다. 왜냐하면 박은석(2021a)은 현대 중국어 부사 ‘再’에도 ‘시간선후’의 의미가 있으므로 ‘又’와 ‘再’ 사이의 의미와 용법 대조를 통해 ‘시간선후’ 의미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유사한 의미와 용법을 가진 부사들 간 대조를 통해서 의미 항목의 목록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박은석(2021a)은 又의 “시간선

후’ 용법에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 사이의 시간 선후 관계가 명시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간의 선후 관계가 명시화되어 있다는 것”은 아래 예문 (8)의 “以后”, 예문 (9)의 “完”과 같이 “해당 사건의 시간 면에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수단에 ‘又’가 결합되어 두 사건 사이의 선후 관계가 잘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시간선후’를 부사 ‘又’의 독립 의미 항목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을 살펴본다. 현대 중국어에서 ‘시간선후’ 의미를 나타내는 ‘又’ 문장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8) 跪下以后, 又抬起头来, 满脸是泪, 嘴动了儿动, 没能说出话来. (CCL)

(9) 喝完酒又去桑拿、K歌. (CCL)

예문 (8)의 “跪下以后, 又抬起头来” 부분의 경우, ‘꿇어앉은 후에 얼굴을 들고’ 혹은 ‘꿇어앉은 후에 다시 얼굴을 들고’로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9)의 경우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사우나와 가라오케에 갔다’ 혹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다시 사우나와 가라오케에 갔다’로 대응시킬 수 있다. 즉, ‘시간선후’ 의미를 나타내는 ‘又’는 대응되는 한국어가 없이 영대응되거나 혹은 한국어 부사 ‘다시’에 대응된다. 그리고 시간선후를 나타내는 ‘又’ 구문에서, 예문 (8)의 “以后”나 예문 (9)의 “完”처럼 시간의 선후를 명시화하는 기능을 하는 어휘는 한국어의 ‘-한 후에’, ‘다 -하고 나서’ 등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시’의 의미 항목들을 살펴보면 “1)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2)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3)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4) 다음에 또”, “5) 이전 상태로 또”의 5개로 ‘시간선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의미 항목은 없다. 그러나 ‘시간선후’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어 부사 ‘다시’에 ‘시간선후’의 의미와 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연세 구어 말뭉치에서 찾은 ‘다시’가 ‘시간선후’를 나타내는 용례이다.

- (10) 이렇게 이케 맨 첨에, 녹음하면요, 그 녹음한 거를 워드 작업을 해 갖구, 다 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수정하구, 그 담에 그거 가지구 이제 기본적인 어~ 거 나누구, 그거 출생지 이런 거랑 맞춰 가지구, 조사하고 그런 거예요,... (연세 구어 발음치)

예문 (10)의 ‘다시’는 ‘시간선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문 (10)의 ‘다시’는 동작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후’의 의미를 나타낸다. “맨 첨에, 녹음하면요”, “다 친 다음에” 라는 말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동작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워드 작업을 해 갖구, 다 친 다음에” 수정 동작이 처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작 ‘반복’의 의미가 아닌 ‘시간선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중국어 ‘又’와 한국어 ‘다시’ 사이의 대조를 통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다시’의 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3. ‘반복’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반복’ 의미는 중국어 부사 ‘又’의 의미와 용법 중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항목이다.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도 ‘반복’의 의미를 첫 번째 항목으로 하여 ‘又’의 의미와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 II장 1-1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又’의 원래 용법, 기본 용법은 ‘추가’라고 볼 수 있다. ‘추가’를 나타내는 사건에서 서술구 부분이 동일하면 ‘반복’ 의미가 된다. 세계 언어의 부사들을 살펴보면 ‘추가’와 ‘반복’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부사들이 많아서 ‘추가’와 ‘반복’의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又’와 ‘再’, 한국어의 ‘또’와 ‘다시’도 ‘추가’와 ‘반복’의 의미와 용법을 같이 가지고 있다. 중국어 부사 ‘又’가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1) 第二天他又去办公。 (CCL)

예문 (11)은 ‘이튿날 그는 또 일하러 갔다.’ 혹은 ‘이튿날 그는 다시 일하러 갔다.’로 대응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또’와 ‘다시’가 ‘반복’의 의미의 중국어 ‘又’에 대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부사 ‘又’는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됨을 나타내는 ‘다중 반복’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어 부사 ‘又’는 관용화된 문형으로 ‘다중 반복’을 나타내는데,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는 ‘又’가 나타내는 ‘다중 반복’의 문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문형은 ‘V1了又V1’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2) 一个背包, 用了20多年, 补了又补, 现在还用着; (CCL)

예문 (12)는 ‘하나의 책가방을 20년 썼는데 수선하고 또 수선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다.’로 대응될 수 있다. 즉, ‘V1了又V1’은 한국어의 ‘-하고 또 -하고’에 대응된다.

두 번째 문형은 ‘V1了又V2, V2了又V1’을 들 수 있다.

- (13) 织了又拆, 拆了又织, 反反复复30多遍, 现在勉强过关, 逃课织到现在15厘米。 (CCL)

예문 (13)의 “织了又拆, 拆了又织” 부분은 ‘떴다가 풀고, 풀었다가 뜨고’ 혹은 ‘떴다가 또 풀고, 풀었다가 또 뜨고’ 혹은 ‘떴다가 다시 풀고, 풀었다가 다시 뜨고’에 대응시킬 수 있다. 즉, ‘V1了又V2, V2了又V1’ 문형은 한국어의 ‘-했다가 -하고, -했다가 -하고’, 혹은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혹은 ‘-했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 등에 대응된다. 즉, ‘V1了又V2, V2了又V1’ 문형의 한국어 대응의 경우 한국어의 부사 ‘또’와 ‘다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형은 ‘又’ 앞뒤에 수사 ‘一’과 양사로 구성된 수량구를 써

서 ‘다중 반복’을 나타내는 문형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4) 演出结束后, 观众全体起立长时间地鼓掌, 演员们一次又一次地出来谢幕。 (CCL)

(15) 可是一天又一天过去了, 护照却始终没有下来。 (CCL)

(16) 民间艺人巴桑的歌声吸引来一群又一群行人。 (CCL)

예문 (14)의 “演员们一次又一次地出来谢幕” 부분은 ‘배우들은 몇 번이나 나와서 커튼콜에 답례하였다’, ‘배우들은 계속 나와서 커튼콜에 답례하였다.’ 등에 대응된다. 예문 (15)의 “可是一天又一天过去了” 부분은 ‘그렇지만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다’에 대응된다. 예문 (16)은 ‘민간예술인 바桑의 노래 소리는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행인들을 끌어들이었다.’에 대응된다. 즉, 중국어에서 ‘—+양사+又+—+양사’로 이루어진 ‘다중 반복’ 표현은 한국어에서 ‘다중 반복’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 ‘몇 번이나’, ‘계속’, ‘한+의존명사+또+한+의존명사’ 등으로 대응됨을 볼 수 있다.

1-4. ‘계속’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 부사 ‘又’는 ‘계속’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徐鹏波(2007)처럼 ‘계속’ 의미를 ‘又’의 독립된 의미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반복’ 의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중국어의 부사 ‘再’도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又’와 ‘再’의 대조를 통하여 ‘계속’이라는 의미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박은석(2021a)에서는 ‘계속’을 중국어 부사 ‘又’의 독립적인 의미 항목으로 보았고 본고에서도 ‘계속’ 의미를 중국어 부사 ‘又’의 독립 의미 항목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한다. ‘계속’ 의미를 나타내는 ‘又’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7) 兪山林见乌云没动, 不知她是什么意思, 硬着头皮又坐了一会儿,
就站起来, 往炕边走去。 (CCL)

예문 (17)에서 “硬着头皮又坐了一会儿”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더 앉아 있었다’에 대응된다. 즉, ‘계속’ 의미의 ‘又’는 한국어의 ‘더’에 대응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더’는 그 의미 항목 중 첫 번째로 “계속하여. 또는 그 위에 보태어.”를 들고 있고 그 예문 중 하나로 “조금 더 기다리자.”를 들고 있는데, 이 예문은 ‘계속’ 의미에 해당한다. 연세 구어 말뭉치에서 찾은 ‘계속’ 의미 ‘더’의 예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18) 아 형 좀 좀 더 있다 가세요. (연세 구어 말뭉치)

1-5. ‘정도심화’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는 “‘又’ 앞뒤로 같은 형용사를 반복하면 정도가 아주 높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단음절 형용사인 경우 ‘又’ 앞에 반드시 ‘而’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도심화 의미의 ‘又’ 문형은 “A1又A1” 혹은 “A1而又A1”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 (19) 有时候烦恼我们的只是一件小而又小的事,... (CCL)
(20) “厦门金门门对门, 中秋团圆圆又圆!” (CCL)

예문 (19)의 “小而又小的事” 부분은 ‘작고도 작은 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예문 (20)의 “圆又圆”은 ‘둥글고도 둥글다’로 해석된다.

즉, ‘又’가 ‘정도심화’ 의미를 나타내는 ‘A1又A1’ 혹은 ‘A1而又A1’의 문형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A-고도 A-다’로 대응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부사 중에서 ‘더’도 정도 심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

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의 ‘더’의 의미 항목 중 두 번째 항목으로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가 있고 그 예문 중 하나로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춥다.”가 예시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어 부사 ‘더’도 정도 심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더’는 중국어 부사 ‘又’가 정도 심화를 나타내는 문형인 ‘A1又A1’ 혹은 ‘A1而又A1’에는 대응되지 않으며 대응시키려 하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는데, 이는 중국어의 ‘A1又A1’ 혹은 ‘A1而又A1’이 간략하고 관용적인 문형이어서 한국어의 ‘A-고도 A-다’로 대응시키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6. ‘환원’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又’의 ‘환원’ 의미는 郭锐(2007), (2010), 黄婷(2008)에서 비로소 주목한 의미이다. 현대 중국어 부사 ‘又’에 관한 저명한 연구인 『现代汉语 800词』를 비롯,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又’의 ‘환원’ 의미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주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郭锐(2007), (2010), 黄婷(2008)이 ‘又’의 ‘환원’ 의미에 주목한 것은 매우 선구적 의의가 있다. 한국어학계에서는 윤재학(2007)이 “원상회복적 의미”와 “단순반복적 의미”라는 의미 기준으로 한국어 부사 ‘또’와 ‘다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윤재학(2007)이 말하는 “원상회복적 의미”란 바로 본고의 ‘환원’ 의미이다. 朴恩石(2008[2010])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어 부사 ‘又’에는 ‘환원’ 의미가 있지만 한국어 ‘또’에는 ‘환원’ 의미가 없다고 대조하였다. 현대 중국어 ‘환원’ 의미 ‘又’ 문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他们在各自的方位划了一个圆后, 又回到了原来的位置。 (CCL)

(22) 他伏在地上不动也不动那么久, 可忽然又醒过来了, 什么事都没有, 真大难不死。 (BCC)

예문 (21)의 “又回到了原来的位置”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

다’에 대응된다. 예문 (22)의 “可忽然又醒过来了”는 ‘그렇지만 갑자기 다시 깨어났다’로 대응된다. 즉, ‘환원’ 의미의 ‘又’는 한국어 부사 ‘다시’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예문 (21)과 (22)의 ‘又’를 ‘또’로 대응시키면 ‘환원’의 의미가 아니라 ‘반복’의 의미로 변한다. 따라서 ‘환원’ 의미의 ‘又’는 ‘또’가 아닌 ‘다시’로 대응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2. 강화사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 ‘又’는 품사 면에서 부사로 분류되지만 박은석(2021b)에서는 ‘又’에 앞서 살펴보았던 “추가”, “시간선후”, “반복”, “계속”, “정도 심화”, “환원” 등의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 부사로서 의미 기능 외에 “강화사”로서의 기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강화사’ 기능은 『现代汉语800词』(1980[1999]) 등의 전통적인 ‘又’ 연구에서는 “语气(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불려왔다. 본고에서는 이 “어기를 나타냄”이라고 일컬어져 온 ‘又’의 기능을 박은석(2021b)에서처럼 ‘강화사’로서 포착하고 그 한국어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II장 첫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고는 Huddleston, Rodney D. & Pullum, Geoffrey K.(2002)와 위키피디아(영어판)를 참고하여 강화사를 “절의 명제적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고 그것이 수식하는 단어의 부가적인 느낌 면에서의 문맥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로 정의한다. 박은석(2021b)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강화사 ‘又’는 “주제 승계 질문 강화”, “반문 강화”, “상반 강화”, “적절성조건 부정 강화”의 역할을 한다. 이하에서는 이 네 가지 역할과 그에 대한 한국어 대응을 차례차례 살펴본다.

2-1. ‘주제 승계 질문 강화’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又’의 “주제 승계 질문 강화” 기능은, 郭锐(2010)가 처음으로 제기한 ‘又’의 “계속 질문(继续提问)” 기능에 대하여 박은석(2021b)에서 그 외

연을 더 넓히고 수정하여 포착한 ‘又’의 기능이다. “주제 승계 질문”이란 ‘又’를 포함하고 있는 뒤 문장이 “앞 문장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승계하여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여기서 ‘又’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잇는 ‘접속부사’와 ‘주제 승계 질문’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강화사’ 역할을 한다. ‘주제 승계 질문 강화’ ‘又’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3) 这便不得不说到每个人心中幸福的尺度, 你理解的幸福是什么?
获得幸福的保障又是什么呢? (CCL)
- (24) 二十年前在美国一家杂货店打工的王嘉廉, 如今事业辉煌。
其成功的秘诀又是什么呢? (CCL)

예문 (23)의 “你理解的幸福是什么? 获得幸福的保障又是什么呢? (네가 이해하는 행복은 무엇이니? 행복 획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또 무엇이니?)” 부분에서 ‘又’가 들어 있는 “获得幸福的保障又是什么呢(행복 획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또 무엇이니?)” 문장은 앞 문장의 “幸福(행복)”를 주제로 이어받아 “获得幸福的保障(행복 획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주어를 만들어 이에 대한 새로운 질문인 “获得幸福的保障又是什么呢?(행복 획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또 무엇이니?)”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 (24)의 “如今事业辉煌,其成功的秘诀又是什么呢?(지금 사업이 매우 번창하다. 그 성공의 비밀은 또 무엇인가?)” 부분에서 ‘又’가 들어 있는 “其成功的秘诀又是什么呢?(그 성공의 비밀은 또 무엇인가?)” 문장은 앞 문장의 “事业辉煌(사업 번창)”을 주제로 이어받아 “其成功(그 성공)”으로 변형시킨 뒤에 이를 “秘诀(비밀)”이라는 명사의 관형어로 삼아 “其成功的秘诀(그 성공의 비밀)”이라는 주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질문인 “其成功的秘诀又是什么呢?(그 성공의 비밀은 또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장들에서 ‘又’는, 앞 문장과 ‘又’가 들어 있는 뒤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접속부사’ 역할도 하고 ‘주제 승계 질문’ 의미를 강화시켜주

는 강화사 역할도 한다. ‘강화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又’가 들어 있는 문장에서 ‘又’를 빼다고 해도 명제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고 “부가적인 느낌 면에서의 문맥 의미를 강화시키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앞 예문 (24)의 예로 강화사 ‘又’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4) a. 二十年前在美国一家杂货店打工的王嘉廉, 如今事业辉煌。
其成功的秘诀是什么呢?
b. 二十年前在美国一家杂货店打工的王嘉廉, 如今事业辉煌。
其成功的秘诀又是什么呢? (CCL)

(24a)는 ‘又’가 없는 예이고, (24b)는 ‘又’가 있는 예인데, (24a)처럼 ‘又’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24b)처럼 ‘又’가 있는 경우가 문장 간 접속 면에서 더 부드럽고, 문맥 의미 면에서 의문의 느낌이 더 강화된다. 박은석(2021b)에서는 ‘주제 승계 질문 강화’ 역할의 ‘又’가 “접속부사에서 강화사로 발전하는 단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예문 (23)에서 “获得幸福的保障又是什么呢?” 문장은 ‘행복 획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또 무엇이니?’로 대응되고 예문 (24)에서 “其成功的秘诀又是什么呢?”은 ‘그 성공의 비결은 또 무엇인가’로 대응된다. 즉, ‘주제 승계 질문 강화’ ‘又’의 한국어 대응은 한국어의 ‘또’ 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또’ 역시 ‘주제 승계 질문 강화’ 역할을 하는 강화사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중국어 ‘又’와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2. ‘반문 강화’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现代汉语800词』(1980[1999])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허사 사전들, 그리고 박은석(2021b)에서도 ‘又’에 “반문 강화” 용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又’의 ‘반문 강화’ 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5) 王东似乎很想让我相信,他现在是一个很开心的人,但是我更愿意相信他说的另一句话:“不开心又能怎么样呢?” (CCL)
- (26) 这种泄漏国家军事机密的行为不是犯罪又是什么? (CCL)
- (27) 而我却认为:“祖业再多也会有用完的时候,要想自己的生活过得好一点,关键还得靠自己去做。分多分少又有什么关系呢?何必为此而和父母、兄弟闹矛盾?” (CCL)

위 예문 (25), (26), (27)에서 ‘又’는 명제적 의미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해도 명제적 의미를 삭감시키지 않는다. 즉, ‘又’는 반문의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강화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 (27)에서 “分多分少又有什么关系呢?(많이 분배받든 적게 분배받든 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에서 ‘又’를 빼고 “分多分少有什么关系呢?(많이 분배받든 적게 분배받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명제적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又’가 있는 경우에 반문의 느낌이 더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 (25), (26), (27)에서는 ‘又’의 통사적 연결 역할, 다시 말해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서로 이어주는 접속부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볼 수 없다. 즉, ‘반문 강화’ 역할의 ‘又’는 ‘주제 승계 질문 강화’의 ‘又’처럼 접속부사 역할과 강화사 역할을 겸임하지 않고 강화사 역할만 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문들의 한국어 대응을 살펴보면, (25)의 “不开心又能怎么样呢?”는 “즐겁지 않으면 또 어찌겠는가?”로 대응되고, (26)의 “这种泄漏国家军事机密的行为不是犯罪又是什么?”는 “이러한 국가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로 대응되며, (27)의 “分多分少又有什么关系呢?”는 “많이 분배받든 적게 분배받든 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로 대응된다. 즉, (25), (26), (27)의 ‘又’는 모두 한국어의 ‘또’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또’ 역시 ‘반문 강화’ 역할을 하는 강화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중국어 ‘又’와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2-3. ‘상반 강화’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의 ‘又’는 앞뒤 문장 간 상반되는 의미를 강화시키는 강화사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8) 有时候我也真想让他死, 可是又怕他死。 (CCL)
 (29) 你说了之后我觉得可能有点不对, 但是又反驳不了你。 (CCL)
 (30) 这三本杂志虽然内容类似却又有很大区别。 (CCL)
 (31) “要的人没有, 不要的人又太多, 企业怎么搞得活?” (CCL)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는 이러한 ‘又’의 용법에 대하여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고, “전환을 표시함(表示转折)”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박은석(2021b)에서는 이러한 용법에서는 앞뒤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보다는 “상반”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며, 이러한 문장들에서 ‘又’는 상반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강화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문장들에서 ‘可是, 但是, 却, 而, 虽然, 不过’ 등의 접속사가 있으면 그 상반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접속사가 아예 없는 ‘상반’의 미 문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반’의 의미는 접속사에만 의지해서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장의 앞 상황과 뒤 상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 예문 (31)의 “要的人没有, 不要的人又太多(필요한 사람은 없고 불필요한 사람은 또 너무 많으니)”에서 “要的人没有(필요한 사람은 없고)”와 “不要的人又太多(불필요한 사람은 또 너무 많으니)”는 ‘상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없이 연결되었지만 내용상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 예문 (28), (29), (30), (31)에 들어 있는 ‘又’를 ‘상반’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강화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문장들에서 ‘又’를 생략해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又’가 있으면

상반의 느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위 예문들에 대한 한국어 대응을 살펴보면 예문 (28)은 ‘어떤 때는 나도 정말 그가 죽었으면 하지만 또 그가 죽을까봐 겁난다.’로 대응되고, 예문 (29)는 ‘네가 말한 후에 나는 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또 너를 반박할 수 없다.’로 대응되고, 예문 (30)은 ‘이 세 가지 잡지는 비록 내용이 비슷하지만 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로 대응되며, 예문 (31)은 ‘필요한 사람은 없고 불필요한 사람은 또 너무 많으니 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응된다. 즉, 상반 강화 의미의 ‘又’는 한국어에서 ‘또’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또’의 의미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들고 있으며 그 예로 다음을 들었다.

(32) 들던 대로 그의 눈은 안개가 낀 듯 희부옇고 선 듯한 목소리였으나 그런 목소리가 또 그렇게 맑게 들릴 수가 없었다.
(표준국어대사전)

예문 (32)의 한국어 ‘또’는 바로 ‘상반 강화’ 용법의 ‘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의 ‘또’ 역시 ‘상반 강화’ 역할을 하는 강화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중국어 ‘又’와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2-4. ‘적절성조건 부정 강화’ 의미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 ‘又’는 “적절성조건 부정”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강화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3) 他怎么会知道的, 我又没告诉他。 (800词)
- (34) 放心, 我又不会对穗珠说。 (CCL)
- (35) 好, 考吧! 咱们又不是没见过世面的人! (CCL)

『现代汉语800词』(1980[1999])에서는 이러한 ‘又’의 용법에 대하여 어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고, “부정을 강화시킴(加强否定)”이라고만 설명하였다.

Yong-O Big(1988)은 이러한 종류의 ‘又’ 문장들에서 부정되는 것은 “부정되는 명제 자체가 아니고 그 부정되는 명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적절성조건(felicity condition)”이라고 보았으며, 명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적절성조건을 부정하는 이유는 이전에 주장된 것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화자가 축적해 온 논거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又’ 문장에 들어 있는 부정에 대하여 马真(2001)은 “전제조건 부정(否定前提条件)”, 郭锐(2010)는 “전제 부정(否定前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Yong-O Big(1988)의 “적절성조건 부정”과 용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제”라는 용어는 화용론과 정보구조 이론 등에서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박은석(2021b)에서는 이러한 문장들에 들어 있는 부정에 대하여 马真(2001)의 “전제조건 부정” 혹은 郭锐(2010)의 “전제 부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 Yong-O Big(1988)의 “적절성조건 부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문장들에 들어 있는 ‘又’를 “적절성조건 부정”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강화사로 보았다. 이러한 문장들에서 ‘又’를 생략하여도 명제 의미에는 영향이 없고, ‘又’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성조건 부정”의 느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예문 (33)의 경우 ‘그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로 대응되고 예문 (34)의 경우, ‘안심해, 내가 穗珠에게 말할 것도 아닌데’로 대응되고 예문 (35)의 경우 ‘좋아, 시험해봐! 우리들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로 대응된다.

즉, ‘又’가 ‘적절성조건 부정’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강화사 역할을 할 때는 중국어의 부정부사 ‘没, 不’과 더해져서 한국어의 ‘-인 것도 아닌데’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담화표지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현대 중국어에서 ‘又’가 원래 부사의 위치인 서술구 앞에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은석(2021b)에서는 이처럼 문미에 출현하는 ‘又’를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로 보았으며 본고에서도 문미 출현 ‘又’를 담화표지로 보고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담화표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박은석(2021b)와 마찬가지로 Schiffrin(1987)을 참고한 위키피디아(영어판)의 정의와 설명을 따른다.

“담화표지는 담화의 흐름과 구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 또는 구이다. 담화표지의 주요 기능은 발화 또는 문장의 층위가 아니라 담화 층위(발화의 순서)에 있기 때문에 담화표지는 상대적으로 통사 독립적이며 일반적으로 문장의 진리 조건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박은석(2021b)은 전영옥(2002)의 담화표지 특징에 대한 연구에 비추어서 문미에 출현하는 ‘又’가 담화표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현 환경 면에서 볼 때 문미 출현 ‘又’는 대부분 구어 담화에서 출현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현 방식 면에서 현대 중국어 ‘又’의 품사는 부사인데 부사가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등 세계 여러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형태, 통사적 특징 면에서 볼 때 문미 ‘又’는 서술구 앞에 놓이지 않고 문미에 놓이므로 서술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의 역할이 약해졌으며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통사적인 필수 성분이 아닌 독립적인 성분처럼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의미적 특징 면에서 볼 때 서술구 앞에 출현하는 일반적인 부사 ‘又’가 나타내는 명제적 의미인 ‘추가’, ‘반복’, ‘환원’ 등이 아닌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화용적 특징 면에서 볼 때 ‘선행 발화 강조’라는 담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고의 II 장 2절에서 살펴본 '강화사'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고 통사적으로도 생략이 가능한 점에서 볼 때 담화표지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사 '又'는 박은석(2021b)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사적 위치 면에서 부사 '又'의 원래 위치인 서술구 앞에서만 출현한다는 점, 그리고 구어 담화 환경에서만 출현한다는 제약이 없고 문어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점 등을 볼 때 문미 출현 '又'보다 담화표지적인 특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장 성분이 담화표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성분을 담화표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양자택일적인 관점보다는 정도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미에 출현하는 '又'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으며, 문미에 출현하는 '又'를 담화표지로 본 것은 박은석(2021b)의 연구가 국내외 학계를 막론하고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담화표지 '又'에 대한 한국어 대응 연구도 전무하였는데 본고에서 처음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은석(2021b)에 따르면 진술문 환경에서 출현한 담화표지 '又'와 의문문 환경에서 출현한 담화표지 '又'는 특성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진술문 환경 담화표지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진술문 환경에서 '又'가 원래 부사의 위치인 서술구 앞에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 출현하는 경우의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예는 박은석(2021b)의 예이다.

- (36) 那时候儿又一个人住一个院子又害怕又, 我说这人多了还是比较好, 我还愿意人多。 (成佳悦, 2018)
- (37) 他今天又来了又。 (중국어 모어 화자 제공 예문)
- (38) “自己的孩子自己爱, 自己的学校自己盖。” “建”改为“盖”后与“爱”押韵, 产生特殊的语音效果, 好听又。 (BCC)

- (39) 睡不着。失眠了又。真折磨人。 (BCC)
- (40) 嘿嘿。宝贝我想你了又。 (BCC)
- (41) “一往无前的最大动力就是你所热爱的一切”的心境回来了又。 (BCC)
- (42) 艺术品投资顾问, 厉害, 我想投资, 就是没钱又。 (BCC)

예문 (36)과 (37)은 ‘又’가 서술구 앞과 문미에 중복 출현한 예이고, 예문 (38), (39), (40), (41), (42)는 ‘又’가 문미에 단독 출현한 예이다.

예문 (36)은 ‘그 때는 집에 혼자 살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또, 역시 사람이 많은 게 좋아, 나는 사람이 많은 걸 원해.’로 해석되는데 “又一个人住一个院子又害怕又(집에 혼자 살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또)” 부분에서 첫 번째 ‘又’와 두 번째 ‘又’는 ‘추가’ 의미 기능을 가지고 두 개의 서술구를 연결해주는 ‘又…又’ 구문의 ‘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문 (36)에서 문미에 출현한 세 번째 ‘又’에 대하여 박은석(2021b)은 “앞의 두 ‘又’와는 달리 두 서술구를 연결하는 역할 혹은 새로이 명제적 정보를 추가하는 역할”은 거의 없으며, “‘又’가 원래 출현했어야 할 서술구 앞 위치가 다른 두 개의 ‘又’로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서술구 앞에 출현했어야 할 ‘又’가 위치 이동을 하였거나 도치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又’를 “선행 발화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술구 앞에 출현하는 ‘又’의 의미적, 통사적 영향 범위는 ‘서술구’로 제한된 상태”이지만 “문미 출현 ‘又’는 문미에 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미적, 통사적 영향 범위를 ‘선행 문장 전체’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선행 발화 내용 강조’ 역할이란 선행 문장에서 말한 내용을 모두 강조해준다는 뜻이므로 문미 ‘又’를 ‘문장 전체 어기 강화’ 역할을 하는 ‘어기 강화사’로 볼 수도 있으나 문미에 출현하는 ‘又’를 단순히 ‘강화사’로 보지 않고 ‘담화표지’로 보는 이유는 문미 ‘又’는 구어 담화에서 쓰이기 때문에 문어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어기 강화’ 기능 외에도 ‘화자와 청자 간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담화표지의 기능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문미 출현 ‘又’는 구어 환경에서 문미에 출현하여 ‘선행

발화 내용 강조’ 기능을 통해 청자에게 자신이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바와 선행 발화를 강조하고 싶다는 태도를 알리고 청자의 대처를 준비시키는 담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문 (36)에서 문미에 출현한 ‘又’는 ‘선행 발화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인데 이 ‘又’는 한국어의 ‘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37) “他今天又来了又。(그는 오늘 또 왔어 또.)”에서 서술구 ‘又来’ 앞에 출현한 ‘又’는 ‘반복’ 의미의 ‘又’이다. 그리고 박은석(2021b)에 따르면 “‘반복’의 의미는 서술구 앞의 ‘又’가 이미 표현해주었으므로 ‘문미의 ‘又’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선행 발화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로 볼 수 있다.” 예문 (37)에서 문미에 출현한 담화표지 ‘又’도 한국어의 ‘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예문 (38)은 “자신의 아이는 자신이 사랑하며, 자신의 학교는 자신이 짓는다”. ‘建(건설한다)’를 ‘盖(짓는다)’로 바꾸니 ‘愛(사랑한다)’와 압운이 되어서 특수한 음성 효과를 만들어내고 듣기에도 좋고 또.’로 해석된다. 예문 (38)의 “产生特殊的语音效果, 好听又。(특수한 음성 효과를 만들어내고 듣기에도 좋고 또.)”에서 문미에 출현한 ‘又’는 ‘선행 발화 강조’ 담화표지이다. 박은석(2021b)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문 (38)의 문미 ‘又’가 “원래 출현했어야 하는 위치는 서술구 “好听” 앞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래는 “产生特殊的语音效果, 又好听。(특수한 음성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듣기에도 좋다.)”처럼 쓰여서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产生特殊的语音效果”와 “好听”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문 (38)에서는 ‘又’가 “서술구 앞에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만 출현하여 “产生特殊的语音效果, 好听又。(특수한 음성 효과를 만들어내고 듣기에도 좋고 또.)”의 형식을 가지게 되면서 ‘추가’의 의미 표현과 서술구 간 ‘연결’ 기능 뿐 아니라 선행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표지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게 된 것”이다.

예문 (36), (37)에서처럼 ‘又’가 문장 안에서 서술구 앞과 문미에 중복 출현하지 않고 예문 (38)에서처럼 ‘又’가 문미에만 단독 출현하는 경우

는 ‘선행 발화 강조’의 담화표지 기능과 아울러 ‘추가’, ‘구와 구를 연결’ 등의 기능도 같이 가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예문 (38)에서 문미에 단독 출현한 ‘又’는 한국어의 ‘또’에 대응되었다.

예문 (39)는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또. 진짜 괴로워.’로 해석되며 문미에 단독 출현한 ‘又’는 ‘선행 발화 강조’ 담화표지이다. 그리고 서술구 앞에는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39)의 문미 ‘又’는 선행 발화를 강조 하는 담화표지의 역할과 아울러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예문 (39)의 문미 ‘又’는 한국어의 ‘또’에 대응되었다.

예문 (40)은 ‘હે헤, 자기야, 나 네가 보고 싶어 또.’로 해석되며 문미에 단독 출현한 ‘又’는 ‘선행 발화 강조’ 담화표지이다. 그리고 서술구 앞에는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40)의 문미 ‘又’는 담화표지의 역할과 아울러 ‘반복’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예문 (40)의 문미 ‘又’는 한국어의 ‘또’에 대응되었다.

예문 (41)은 ‘용왕매진하는 가장 큰 동력은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는 심경으로 돌아왔어 또.’로 해석되며, 문미에 단독 출현한 ‘又’는 ‘선행 발화 강조’ 담화표지이다. 그리고 ‘又’가 서술구 앞에는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41)의 문미 ‘又’는 담화표지의 역할과 아울러 ‘환원’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예문 (41)의 문미 ‘又’는 한국어의 ‘또’에 대응되었다.

예문 (42)는 ‘예술품 투자 고문, 대단하다. 나는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또.’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미에 단독 출현한 ‘又’는 ‘선행 발화 강조’ 담화표지이다. 그리고 ‘又’가 서술구 앞에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예문 (42)의 문미 ‘又’는 담화표지의 역할과 아울러 ‘상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예문 (42)의 문미 ‘又’는 한국어의 ‘또’에 대응되었다.

위 예문들과 그에 대한 한국어 해석을 통해, 중국어에서 문미에 출현하는 ‘又’는 모두 한국어의 문미 ‘또’에 대응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세 구어 말뭉치에서 진술문 환경에서 사용된 문미의 ‘또’ 예문을 꽤 찾을 수 있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43) 오늘은 없는데 그 동안 쌓인 게 많아, 그동안 숙제가 있어 또.
(연세 구어 말뭉치)

(44) 전화를 해 보면 되지. 어 나 전화를 안 때렸지 또.
(연세 구어 말뭉치)

(43)과 (44)에서 ‘또’는 문미에 쓰였고,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또’ 앞에 나오는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또’도 문미에 출현할 수 있고 선행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표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중국어 ‘又’와의 대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3-2. 의문문 환경 담화표지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

의문문 환경에서 ‘又’가 원래 부사의 위치인 서술구 앞에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 출현하는 경우의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예는 박은석(2021b)의 예이다.

(45) 又怎么了又? (劉探宙, 2018)

(46) 又发什么神经呢又! (劉探宙, 2018)

(47) 你干什么来的今天又? (成佳悦, 2018)

(48) 我真的晕车了又? (BCC)

(49) 阿娜和荔枝都进步迅速! 噯!!!! 好喜欢啊亲!!! 卖萌了又? (BCC)

예문 (45)는 ‘또 왜 그래 또?’로 해석되는데 서술구 앞에 쓰인 ‘又’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又’이고 ‘반복’의 의미는 서술구 앞 ‘又’가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미에 쓰인 ‘又’는 ‘선행 발화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라고 볼 수 있다. 문미의 담화표지 ‘又’는 한국어 ‘또’에 대응된다.

예문 (46)은 ‘또 무슨 발광을 하고 그래 또!’로 해석되는데 서술구 앞에 쓰인 ‘又’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又’이고 ‘반복’의 의미는 서술구 앞 ‘又’가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미에 쓰인 ‘又’는 ‘선행 발화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라고 볼 수 있다. 문미의 담화표지 ‘又’는 한국어 ‘또’에 대응된다.

예문 (47)은 ‘너 뭐하러 왔어 오늘 또?’로 해석되는데 이 문장에서 ‘又’는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선행 발화 강조’의 담화표지 역할 외에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리고 문미에 출현한 담화표지 겸 반복의 ‘又’는 한국어 ‘또’에 대응된다.

예문 (48)은 ‘내가 정말 차 멀미를 했나 또?’로 해석되는데 문미 ‘又’는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선행 발화 강조’의 담화표지 역할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문미에 출현한 담화표지 겸 반복의 ‘又’는 한국어 ‘또’에 대응된다.

예문 (49)는 ‘阿娜’와 ‘荔枝’는 모두 진보가 빨라. 오!!!! 너무 좋아 친구야!!! 귀엽 떠는 거야 또?’로 해석된다. 문미 ‘又’는 문미에만 출현하였기 때문에 ‘선행 발화 강조’의 담화표지 역할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문미에 출현한 담화표지 겸 반복의 ‘又’는 한국어 ‘또’에 대응된다.

진술문 환경의 문미 ‘又’와 의문문 환경의 문미 ‘又’의 공통점은 문장 안에서 문미 ‘又’만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있고, 문미 ‘又’와 서술구 앞 ‘又’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문 환경의 문미 ‘又’와 의문문 환경의 문미 ‘又’의 차이점은 진술문 환경에서 단독으로 출현한 문미 ‘又’의 경우 ‘선행 발화 강조’ 기능의 담화표지 역할 외에 ‘추가’, ‘반복’, ‘환원’, ‘상반 강화’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문문 환경에서 단독으로 출현한 문미 ‘又’의 경우 ‘선행 발화 강조’ 기능의 담화표

지 역할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같이 겸하는 경우만 관찰되었다. 박은석(2021b)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문장 형식의 특성상 진술문 형식에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 의문문 형식에서보다 좀 더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관찰에 따라 의문문에서 문미 ‘又’는 ‘선행 발화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이며 모두 한국어의 문미 ‘또’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연세 구어 말뭉치에서도 의문문 환경에서 사용된 문미 ‘또’의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50) 갑자기 또 분위기 잡을라고 또? (연세 구어 말뭉치)

(51) 어머! 그럼 나는 아 지금 내 꺼 한 시간 녹음해 주고 어?

나를 희생하는 거야 또? (연세 구어 말뭉치)

예문 (50)과 예문 (51)에서 ‘또’는 의문문 환경에서 문미에 쓰였고, ‘또’ 앞에 나오는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표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의 의문문 환경에서 출현한 ‘또’도 문미에 출현할 수 있고, 선행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표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중국어 ‘又’와의 대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III. 맺음말

본고는 현대 중국어 ‘又’의 한국어 대응 양상을 연구하였다. 현대 중국어에서 ‘又’는 품사 면에서 부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인 부사 역할 외에 강화사, 담화표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관찰된다. 본고는 현대 중국어 ‘又’가 명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강화사 역할을 하는 경우와 담화표지 역할을 하는 경우의 한국어 대응 양상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又’가 일반적인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추가’, ‘시간선후’, ‘반복’, ‘계속’, ‘정도심화’, ‘환원’ 등의 명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추가’ 의미의 ‘又’는 한 개의 ‘-도’, 혹은 ‘-며’, 혹은 두 개의 ‘-도’에 대응되거나 한국어에서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부사 ‘또’에 대응됨을 알 수 있었다. ‘시간선후’ 의미의 ‘又’는 대응되는 한국어가 없이 영대응되거나 혹은 한국어 부사 ‘다시’에 대응됨을 알 수 있었다. ‘반복’ 의미의 ‘又’는 한국어의 ‘또’와 ‘다시’에 대응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 반복’을 나타내는 ‘又’ 문형의 경우 ‘V1了又V1’ 문형은 한국어의 ‘하고 또 -하고’에 대응된다. ‘V1了又V2, V2了又V1’ 문형은 ‘-했다가 -하고, -했다가 -하고’,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에 대응된다. 중국어의 ‘—+양사+又+—+양사’ 문형은 한국어에서 ‘다중 반복’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 ‘몇 번이나’, ‘계속’, ‘한+의존명사+또+한+의존명사’ 등으로 대응됨을 볼 수 있었다. ‘계속’ 의미의 ‘又’는 한국어 부사 ‘더’에 대응된다. ‘정도심화’ 의미의 ‘又’는 ‘A1又A1’ 혹은 ‘A1而又A1’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형식들은 한국어에서 ‘A-고도 A-다’의 형식으로 대응된다. ‘환원’ 의미의 ‘又’는 한국어 부사 ‘다시’에 대응된다.

현대 중국어에서 강화사 ‘又’는 ‘주제 승계 질문 강화’, ‘반문 강화’, ‘상반 강화’, ‘적절성조건 부정 강화’의 역할을 하는데, ‘주제 승계 질문 강화’ 역할을 하는 ‘又’의 경우 한국어 ‘또’에 대응한다. ‘반문 강화’ 역할을 하는 ‘又’의 경우 한국어 ‘또’에 대응한다. ‘상반 강화’ 역할을 하는 ‘又’의 경우도 한국어 ‘또’에 대응한다. ‘적절성조건 부정 강화’의 역할을 하는 ‘又’의 경우 중국어의 부정부사 ‘没’ 혹은 ‘不’과 더해져서 한국어의 ‘-인 것도 아닌데’에 대응한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 구어 담화에서 ‘又’가 원래 부사의 위치인 서술구 앞에 출현하지 않고 문미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문미에 출현하는 ‘又’를 박은석(2021b)에서처럼 ‘선행 발화 내용 강조’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로 보았다. 문미에 출현하는 담화표지 ‘又’는 한국

어에서 모두 문미에 출현하는 ‘또’로 대응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어 문미 출현 ‘又’의 한국어 대응과 연세 구어 말뭉치의 한국어 구어 ‘또’ 자료를 통해 한국어의 ‘또’도 문미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이 경우 선행 발화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표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Ⅰ 참고문헌

- 박은석(2021a), 「현대 중국어 부사 ‘又’의 의미 기능과 통사 기능」, 『중국문학』 108, 한국중국어문학회, 395-419.
- 박은석(2021b), 「화용 기능의 ‘又’」, 『중국학보』 97, 한국중국어학회, 35-64.
- 심지영·박은석(2019), 「한·중 발화동사 및 관련 표현의 문법화 - ‘하다’와 ‘說’을 중심으로 -」, 『문법교육』 27, 한국문법교육학회, 59-105.
- 윤재학(2007), 「‘다시’와 ‘또’」, 『언어와 정보』 11-2, 한국언어정보학회, 1-22.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Huddleston, Rodney D. & Pullum, Geoffrey K(2002[2017]),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eborah(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ung-O Big(1988), “From objectivity to subjectivity: The text-building function of YOU in Chinese”, *Studies in Language* 12-1, 99-122.
- 成佳悦(2018), 「现代汉语口语副词后置的多角度考察」, 广西师范大学硕士论文.
- 郭锐(2007), 「语义结构分析法和汉语虚词语义分析」, 第四届现代汉语语法国制学术研讨会论文.
- 郭锐(2010), 「汉语虚词语义分析和语义关联」, 教育部人文社会科学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
- 黄婷(2008), 「“类同”义、“重复”义、“追加”义 - 副词的语义关联」, 北京大学硕士论文.
- 刘探宙(2018), 「句末的情态性重置和重申性再现」, 『世界汉语教学』, 第32卷1期, 52-65.

- 吕叔湘(1980[1999]), 『现代汉语800词』, 北京: 商务印书馆.
- 马真(2001), 「表加强否定语气的副词“并”和“又”——兼谈词语使用的语义背景」, 『世界汉语教学』, 总第57期, 12-18.
- 马真(2004), 『现代汉语虚词研究方法论』, 北京: 商务印书馆.
- 朴恩石(2008[2010]), 「汉语“又”和韩国语“또(또)”的语义对比分析」, 『汉韩语言对比研究(2)』,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徐鹏波(2007), 「“还”, “又”, “也”语气义的表达机制」, 北京大学硕士论文.

언어자료

北京大學CCL語料庫: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BCC漢語語料庫: <http://bcc.blcu.edu.cn>

연세 구어 말뭉치: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SP>

중국어 모어 화자 작문

인터넷 사전

위키피디아 영어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the Chinese ‘*you*’ and the
Korean Counterpart
–from Adverb to Discourse Marker–

Park, Eun Sok
Seoul National University

Sim, Ji Young
Sejong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Korean counterpart of ‘*you*’ in modern Chinese. In modern Chinese, ‘*you*’ is classified as an adverb in part of speech. In addition to its role as an adverb, it also performs a role as an intensifier and a discourse marker.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Korean counterpart in the case where modern Chinese ‘*you*’ acts as a general adverb expressing propositional meaning as well as when it acts as an intensifier and a discourse marker.

Key Words : modern Chinese ‘*you*’, adverb, intensifier, discourse marker,
contrastive study in Chinese and Korean

■ 논문접수일 : 2021. 09. 10

■ 심사완료일 : 2021. 10. 06

■ 게재확정일 : 2021. 10. 07